



북극 하늘에 펼쳐진 아름다운 오로라에서 영감을 받아

예거 르쿨트르가 새롭게 재해석한 두 가지 버전의 랑데부

셀레스티얼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는 인류에게 시간을 측정하는 능력을 안겨준,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밤하늘에서 수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위치메이커들은 지구의 낮과 밤, 계절이 별들의 이동과 변화하는 달의 위상으로 인해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우주를 작은 손목시계 안에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제 76 회 베니스 국제 영화제를 맞이하여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천체를 주제로 여성을 위한 매혹적인 랑데부 셀레스티얼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선보입니다.

랑데부 셀레스티얼

북극 하늘에 펼쳐진 오로라. 오로라라는 이름은 고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새벽의 여신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북극권 근처에서 가장 어두운 밤에만 볼 수 있는 이 매혹적인 현상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오로라는 신비로운 우주에서도 가장 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름다운 랑데부 셀레스티얼 주얼리 위치는 춤을 추듯 하늘을 수놓은 오로라의 선명한 그린과 퍼플, 핑크, 블루 컬러를 재현하여 그 황홀한 모습에 찬사를 바칩니다.

2012 년, 예거 르쿨트르는 당시 찾아보기 어려웠던 여성을 위해 특별 제작된 하이 컴플리케이션 시계, 랑데부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정교한 기계적 특성과 황홀한 디자인의 타임피스를 재해석해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노던 라이트' 에디션은 예거 르쿨트르의



숙련된 보석 세팅과 핸드 페인팅이라는 두 가지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기술을 통합하여 마더오브펠과 다양한 컬러의 사파이어를 강조합니다.

비대칭 구조의 다이얼은 높이가 다른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단은 랑데부 컬렉션을 대표하는 곡선형 플로럴 숫자를 적용하되, 숫자의 크기를 달리해 초승달이 마치 하단에 자리한 다이얼 위에서 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라인을 따라 타원형 핑크 골드 밴드를 장식한 하단부에는 황도 12 궁과 각 달의 명칭과 함께 별자리 지도가 수작업으로 전사 처리되어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보금자리인 발레 드 주에서 바라본 밤하늘을 재현한 별자리 지도는 매 순간 변화하는 별자리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09/1 은 지구의 자전 주기인 23 시간 56 분 4 초와 거의 유사한 속도로 별들이 자리한 디스크 카운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노던 라이트’ 에디션의 마더오브펠 다이얼을 구성하는 두 개의 부분에는 모두 숙련된 장인들이 하늘을 가득 채운 오로라처럼 다채로운 컬러를 수작업으로 칠해 아름다운 오로라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각각의 모델에 적용된 그린과 터콰이즈 또는 퍼플과 블루 컬러는 그 아래 자리잡은 화사한 마더오브펠의 광채와 만나 한층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스카이 디스크가 회전하면 마치 오로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배경 컬러의 패턴이 조금씩 바뀝니다.

다이얼 가장자리에 수작업으로 폴리싱 처리한 랑데부 컬렉션의 상징인 금빛 별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크라운을 돌리면 이 금빛 별이 움직이면서 특별한 랑데부의 시간을 알려줍니다.

다이얼의 풍부한 톤은 눈부신 컬러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118 개의 바게트 컷 사파이어(3.09 캐럿)를 세팅한 베젤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젬스톤을 세팅한 케이스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러그, 두 개의 크라운과 균형을 이루며, 터콰이즈 또는 바이올렛 컬러의 엘리게이터 스트랩이 매치되어 진귀한 타임피스를 완성했습니다.



우주를 담아낸 시계는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개발과 제작의 모든 과정을 진행한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809/1 로 구동됩니다. 랑데부 셀레스티얼을 위해 특별 제작된 기술적 정교함을 지닌 무브먼트는 캘린더 메커니즘을 장착하여 매 순간 변하는 밤하늘처럼 셀레스티얼 디스크를 회전시킵니다.

정교한 구조의 무브먼트를 통해 그랑 메종 최고의 위치메이커들이 지니고 있는 탁월한 기술적 능력을, 그리고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백 아래에 자리한 무브먼트의 마감 기법과 장식을 통해 훌륭한 예술적 감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 스크류, 원형 그레인, 꼬뜨 드 제네브(Côtes de Genève) 장식의 핑크 골드 시그니처 와인딩 로터와 같은 수준 높은 장식과 마감 기법이 돋보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랑데부 셀레스티얼은 각 모델이 18 피스만 제작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그랑 메종의 예술가적 기질과 기술적 역량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밤하늘과 여성들의 신비로운 매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상세 정보:**

크기: 37.5mm

칼리버: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09/1

기능: 시간/분, 별자리 지도, 랑데부 인디케이터

파워 리저브: 40 시간

케이스: 핑크 골드

다이얼: 수작업으로 칠한 마더오브펄

젬스톤: 19 개의 다이아몬드(0.26 캐럿), 118 개의 사파이어(3.09 캐럿)

방수: 5 바(bar)

케이스백: 오픈

제품 번호:

Q3482590, 터과이즈, 18 피스 한정 제작

Q3482591, 바이올렛, 18 피스 한정 제작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설립 이래 뛰어난 노하우와 예술적 감각, 그리고 세련된 스타일과 섬세한 디자인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예술 작품들을 선보여왔습니다. 1833 년부터 시작된 발명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는 매뉴팩처의 장인들은 리베르소와 마스터,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랑데부, 애틀모스와 같이 파인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잇는 컬렉션을 꾸준히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수 세기를 걸쳐 그랑 메종이 구축해온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브랜드의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